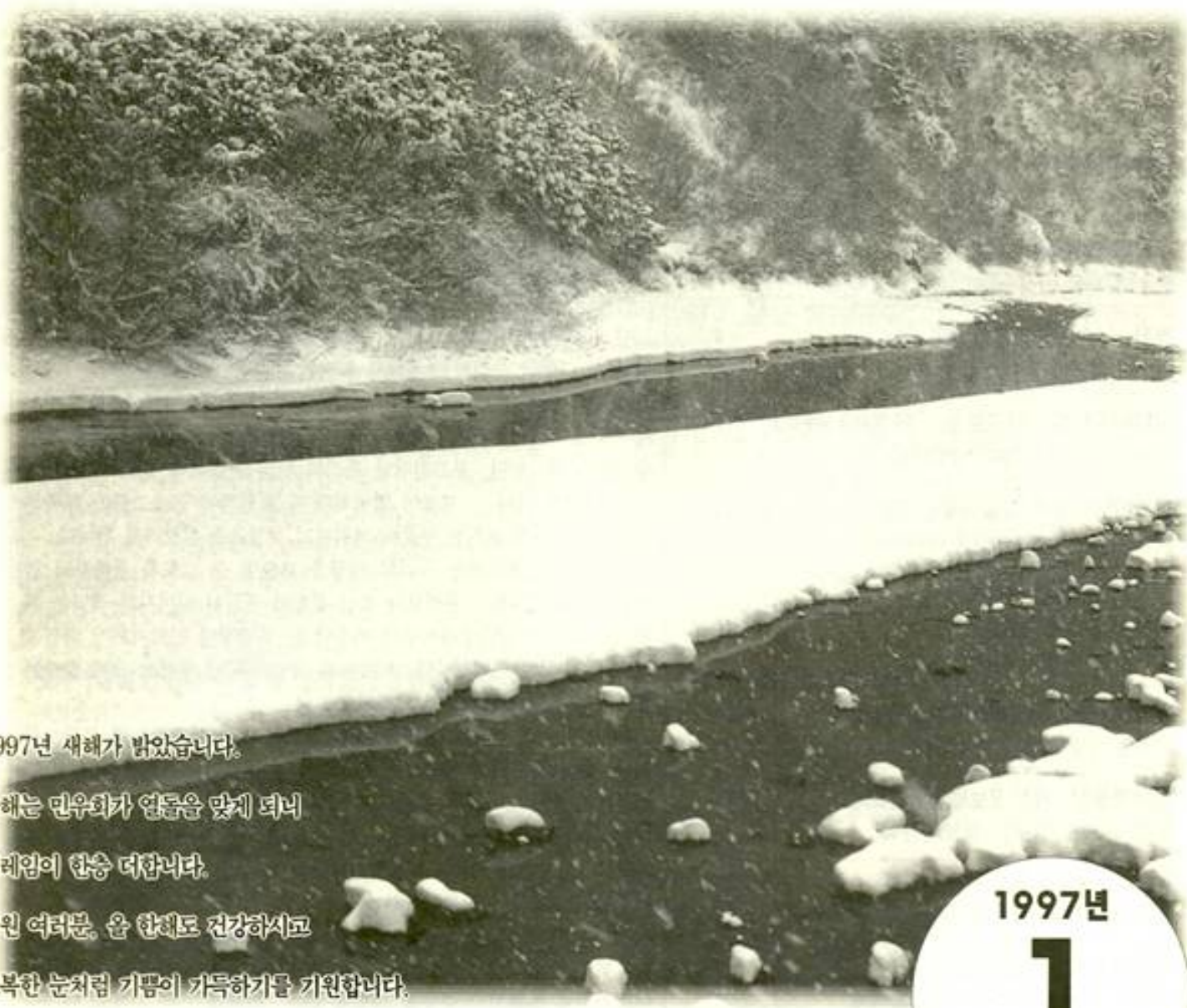




등록번호/라-6763 • 발행일/1997년 1월 1일 • 등록일/1994년 8월 25일 • 발행인 및 편집인/이경숙 • 만드나들/정대은, 양해경, 이혜라, 영진숙, 정은숙, 김정민, 문수경 • 인쇄인/정종화 •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 주소/서울시 중구 정충동 1가 38-84호 「여성평화의집」 1층 • 전화/269-5763~5 • 하이텔, 천리안ID/a325

문화마당 • 연극 '교실이데아' 관람기
비참한 교육현실, 대안은 어디에...

특집 • '96 민우회 활동 평가
민우회 부문별 한해살림
돌아보기



199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민우회가 연둠을 맞게 되니

설레임이 한층 더합니다.

회원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복한 눈처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세요.

1997년

1

통권113호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생활의 주인 • 일터의 주인 한국여성민우회

1997

1

차례

더불어 한걸음씩 함께 가꾸는 '민우 큰나무'	2
부엌밖 세상풍경 · '96 여성운동 10대 뉴스 따올려 가꾼 여성운동의 결실	3
특집 · '96 민우회 활동 평가 민우회 부문별 한해살림 돌아보기	4
모니터위원회 · 사진으로 보는 '96 어린이 방송학교 미디어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11
문화마당 · 연극 '교실이데아' 관람기 비참한 교육현실, 대안은 어디에...	12
여성과 한방 ④ · 주부의 변비 가족 뒷바라지에 바쁜 주부, 여유를 갖는 것도 변비의 예방	13
그때 그 시절 ⑮ · 여성의원 활동 소개 마라톤 같은, 주민 위한 행정으로 가는 길	14
정보화광장 · 열린 정보세상을 위하여 우리 손으로 일구는 정보화사회	16
상담소 · 성의식 바로잡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로잡기	17
생산지이야기 · <화성한과> 한과를 세계의 맛으로 만들 때까지	18
생협소식 · 자신있게 권하는 생활재 안내 먹는 입엔 즐거움, 나누는 마음의 기쁨	19
알림마당	20

함께 가꾸는 '민우 큰나무'



이 경 숙
상임대표

새해가 밝아오면 늘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지만, 97년 새해는 설렘이 더 앞섭니다. 1997 정축년은 민우회가 열번째 생일을 맞는 해이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신희시절의 가슴 떨림같은 느낌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날 수 있는 준비운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자차와 딸기잼을 만든 작은 손의 정성으로 현재의 '민우 큰나무'를 성장시켰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사회주부'로서 이웃과 함께 한 생협과 지회 활동은 우리의 뿌리가 되었고, 고통받는 여성에게 가까

이 다가간 상담활동은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보듬어 '민우 큰나무'의 총체적인 모습을 안팎으로 알리는 역할을 본부가 함으로써 정의로운 난장이들의 합창이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비상을 위해 우리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깊이 성찰하여 진정한 '생활의 주인, 일터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장점으로 회자된 내용은 '개미군단이다', '신뢰감이 간다', '공동체를 지향한다', '회원의 자발적 참여가 높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곳이다' 등으로 건강한 대중조직체로 인식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끄럽지만 우리의 단점을 솔직히 토로하면 '뚜렷한 이미지가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 '회원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등으로 아직 굼직한 부분이 채워지지 못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열의를 쏟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활동의 통일된 이미지화 작업을 위한 민우회의 얼굴단장으로부터 마음단장, 몸단장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의 작은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미지화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그에 걸맞는 풍성한 내용도 채워나가야 되겠지요.

꽤 오랜 시간 민우회 문턱을 넘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으면서 얻은 해안과 여유를 미숙한 후배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민우회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만 묻어두지 않고 당당하게 쏟아내는 신세대의 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핵가족이 사는 집의 반듯한 문지방보다는 대가족이 넘나들어 반들반들하게 닳은 그것이 더 정겹지 않을까요?

'민우 큰나무'의 고향같은 넉넉함 속에 우리 모두의 향취를 남깁시다. 뒤흔만 솔직한 '신세대', 드러나진 않지만 넓은 마음의 '원세대', 여러가지로 바쁘지만 주춧돌 역할을 하는 '진세대', 이 모두의 난장이 합창이 숲에 가득 울려 퍼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학의 희망을 연하장에만 묻어두지 말고 생활 속에서 맘껏 펼쳐 봅시다. **한**

맘흔려 가곤 여성운동의 결실

이 민 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

하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여성, 아동, 노인 등 약자에게 집중해 나타나고 가족해체의 주원인이며 또 다른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는 가정폭력을 우리 사회는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해왔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가정폭력방지법' 법안을 완성했으며, 이후 전국 규모의 22개 여성, 사회단체가 가두 서명운동, 공청회, 문화행사 등을 전개했고 8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31일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중이다.

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죄 배상 촉구 보고서, UN인권위원회에서 채택

이 보고서의 채택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해야 함을 국제사회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대표들이 동의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여성단체들이 외롭게 시작한 운동이 국제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켜 낸 중요한 성과이다.

셋, 공권력에 의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고소, 고발

지난 8월 연세대 종합관에서 진압경찰에 의해 다수의 여학생들이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학생 7인의 고소와 여성, 인권단체의 고발을 통해 그동안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대중에게 알리고 여성인권의 존엄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넷,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여성발전기본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연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권의하였고, 그 결과 중앙부처에 100억이 조성되었다. 각종 법과 제도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에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이호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5공인사와 함께 선정된 '국민훈장' 수상 거부

지난 6월 이호재 공동대표는 정무제2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전두환씨를 위대한 지도자로, 5공의 대통령으로 추대한 5공의 대표적 여성인물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현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정면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민훈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원칙한 선정"이라며 훈장을 거부했다.

여섯, 인위적인 성비파괴에 경종울린 태아 성감별 의사 구속

아들 바라는 임신부에게 돈을 받고 성감별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사가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 출생 비율차는 115.4 : 100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이 태아 성감별을 요구하고 이는 결국 출생에서부터 남녀차별을 일으킨다. 이 사건이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곱, 공무원 5.7급 채용목표제 실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95년 10월, 21세기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시책을 마련, 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중·단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96년 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 커트라인 3점 아래인 여성 1명을 추가합격시킴으로써 채용목표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의 여성채용에 대한 우대조치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덟, 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한 가구당 1인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주어 과부의 여성농민은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가입규정을 1가구 2조합원으로 개정, 확대해 여성농민들이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처음으로 법과 제도 내에서 여성농민을 농업인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홉,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여성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정신대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 일본이 자행한 성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과가 있었다.

열,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난 여성문제에 관한 '한국-중국-베트남 심포지엄' 및 현장 방문 프로그램 개최

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 만난 삼국 대표들의 제의로 96년 한해동안 삼국 교환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회생을 요구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스스로 조직을 결성해 여성권리 확보를 위해 싸워온 한국의 경험을 중국과 베트남의 여성들에게 전수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민우회 부문별 한해살림 돌아보기

민우회 각 부문의 지난 한해 평가를 모아보았다. 이모저모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창립 10주년을 맞는 민우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 편집자

남부지회

어려움이 많지만 다시 힘을 모으자고요

오 해 영 지회대표

어떤 모임에서든 나는 늘 총무나 일반 회원의 자리였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릇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단지 김수희 전(前) 대표를 조금 도와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회 대표라는 커다란 직함을 줄지에 받아 끙끙거리며 이어 온 지난 한 해이다.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소극적이며 직함 뿐인 대표의 모습이었다.

애초 나의 민우회에 대한 생각은 지역운동 참여 차원이 아닌 생협운동의 동조자로서 민우회의 여타 사업에 협조하려는 정도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지역활동에 적극성이 부족했고 밑거름의 역할이 되지 못한 안이한 대표의 모습이었음을 시인한다.

처음 대표를 맡았을 때는 그런대로 의욕이랄까 부담이랄까 아무튼 항상 머리 속에 남부지회의 짐이 떠나지 않은채 생활했다. 한 해 전에 전 대표가 나에게 숙제를 안겨 준다며 조목조목 썼던 우리 지회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볼 때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반기 중점 사업인 생협 회원 확대는 본부나 지회나 고민하고 애쓴 것보다는 별로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 핑계같지만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의 실행과 진행이란 참으로 어렵다. 연락처의 부재와 일의 연계성에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대표 혼자 힘으로는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

그런 중에도 초기부터 활동했던 우리 지회의 운영위원 모임은 꾸준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 큰 힘이 되었다. 매번 하는 푸념같지만 남부지회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약간의 회생이 요구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지역 활동가가(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이다. 구심점이 약한 남부지회는 결국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문제점은 회원 명부에 이름은 있으나 과연 그 중 몇 명이 남부지회에 소속감을 갖고 우리 모임에 관심이 있을까? 연락할 사항에 전화 작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회원은 단순한

생협회원이거나 전혀 관심이 없어 귀찮은 듯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회원을 진정한 민우회 회원으로 끌어안는 일도 우리 운영위원의 몫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박되는 이야기겠지만, 초창기 시절부터 이제까지 현재의 운영위원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치기 전에 조금씩 세대교체가 되어서 조화롭게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1997년에도 제자리 걸음인 우리 남부지회를 대할 것 같아 걱정이다.

남서지회

지역에 깊이 뿌리내리는 민우회를 위해

이 성 미 지회대표

96년 사업평가를 하며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연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고 자평을 했지만 지역에 뿌리내린 정도가 다 다를진대 조금은 애매한 평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인 측정기준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이런 틀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즉 전체 주민 중에 민우회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중 민우회에 호의적인 사람, 실제로 가입한 사람, 그리고 지회일에 재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각각 몇 명인가에 따라 지회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제 겨우 뿌리내리기를 시작한 정도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한편 지회활동이 거의 양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와 구로구의 회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지회의 현재 역량으로는 1개구도 벅찬 편임을 이해해주었으면 고맙겠다.

50만 가까이 되는 지역주민들을 다 조사할 수도 없고 결국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지역신문밖에 달리 활동상을 알리는 방법이 없다고 봤을 때 일단은 자주 지면을 장식했다는 점에서 알리기 작업은 어느정도(특히 구의회, 구청, 지역신문 관계자들에게는) 성공한 것으로 본다. 물론 아직도 민우회를 모르는 지역주민이 많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민우회를 더 알릴까 궁리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을 참 많이도 벌었다는 생각이 든다. 역량이 안되면서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일, 또 지역여성단체로서 요구받는 일 등 모든 일들을 씨뿌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함께 해 준 우리 지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회활동에 직접 나서서 함께하진 못했어도 자신이 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역시 민우회원답다'는 신뢰감을 주어 민우회에 기여하는 회원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일을 돌아보니 잊을 수 없는 일이 많은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해보라며 계획했던 소박한 어린이날 행사가 교육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엄청나게 큰 행사가 되어 스폰서를 구하러 다니던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닌 아이를 들쳐업고 소아과, 치과를 찾아가 회원,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전전한 회원, 서점, 가전대리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거절당해 존심(?)이 상했을 텐데도 신이 나있던 회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구청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따내기 위해 무려 5개부서를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했던 일이 었그제 일처럼 생생하다. 민속놀이 중심으로 진행된 놀이마당을 비롯한 여러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2천여 아이들의 모습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지회의 역량도 강화된 점이 뚜렷한 성과였고, 내년에는 아예 구의 지원사업으로 자리잡도록 구청장 면담을 했다.

또 하나의 연대활동으로 능골산살리기운동에의 참여를 들 수가 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역단체들과의 연대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으로 산을 마구 훼손하려는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아주 힘겨운 싸움이었다. 고척동성당의 신부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인식을 바꿔놓은, 그야말로 지역환경운동의 승리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

나무에 흰천을 매어주는 일도 같이 하고 식목일에 소풍도 갈 겸 나무를 뺨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는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졌다. 묘목을 심고 이름패를 달아주고 호트해했는데(너무 어린 묘목을 심은 탓인지 많이 죽어버려 아쉬움을 주긴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싸움도 참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음을 느꼈다. 주제가 너무 무겁다고 취재를 오지 않던 방송국에서까지 그날 저녁 뉴스에 어느 학교 운동장에 나무심는 모습을 보여주어 언론의 이중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역환경을 우리손으로 지키자는 취지의 환경감시반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름방학에 중고생들에게 자원봉사 일감도 주고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자며 자동차매연과다배출차량을 감시하는 일을 만들어 회원들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식으로 했다. 1명의 공무원이 하던 일을 160여명의 학생들이 4~5명씩 조를 짜서 지키자, 무려 1천여건을 적발해 구청 담당자가 일처리 때문에 난감해 하기도 했다.

한번은 목돈이 조금 생겨 사무실에 TV와 비디오를 사자고 했다가 그 돈은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이 나와 시청각기자재구입추진위원회를 꾸려 월 3,000원씩 내주는 회원을 19명 모아 29인치 TV와 비디오를 마련했는데 도움을 준 추진위원들의 이

름을 TV에 새기기로 했다. 다른 지회에도 이런 식으로 비품을 구입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밖에도 여름휴가를 의미있게 보내자며 홍성으로 가족캠프를 갔던 일이 계기가 되어 생산지에서 다급하게 원조요청이 오면 무조건 사주기로 약속을 한 20명의 정나눔공동체 회원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우여곡절 끝에 하반기에 시작한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은 구구절절 사연도 많지만 다음 기회에 지면이 허락되면 쓰기로 하고 일단 현재 2개 단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지회를 널리 알리고 회원들이 참여할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벌였던 여러가지의 일들이 바로 씨뿌리는 일이고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씨뿌리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튼튼한 싹을 틔우고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도록 부지런히 물을 주고 거름도 주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동북지회

바쁘게 똬 만큼 열매도 알차답니다

김 연 순 지회 사무국장

96년 동북지회는 상근자들 표현에 의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쁜' 한해였습니다. 신년을 맞이한 1월부터 동북지회 <가족과 성 상담소> 개소기념 및 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는데 여성학자 오숙희 씨의 진행에 유명가수, 회원 자녀들로 이뤄진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로 꾸며진 음악회는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새해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뤘 매우 좋은 징조라는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요.

2월에는 역사기행 외에 그 유명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님을 모시고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주제의 문화사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들로부터 유홍준님을 모셔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워낙 바쁜 분이라 시간을 못 내시다가 특별히 허락을 하시고 우리 지역까지 와주셨습니다. 강사의 지명도와 유별난 홍보작업(전단, 포스터는 물론 시장보는 시간에 맞춰 대형 슈퍼들 앞에서의 홍보 같은 것)덕에 지역주부뿐 아니라 중고생, 교사들까지 참여해 무려 500여명의 수강생들이 몰려와서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이 가득 메워지는 일이 벌어졌지요.

96년 목표중의 하나인 회원증대사업은 민우여성학교 수강생과 문화사특강의 수강생들, 그리고 기존 회원들 중심으로 3~5월을 집중기간으로 잡아 공동구입설명회, 시식회, 장터들을 통해 180여명의 회원을 늘렸습니다. 물론 당초 목표인 250명에는 못 미쳐 아쉽지만 하반기에 다른 일들이 워낙 많아 치중을 못했습니다.

동북지회 <가족과 성 상담소>는 너무나도 예쁘게 꾸민 면접

상담실을 갖추고 현재 14명의 상담원들이 주1회 자원봉사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과정까지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주1회 자체학습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나날이 키우고 있지요. 매번 방학때마다 교사 대상의 성교육 강좌를 개최하고 있고 오는 1월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도 마련했습니다.

얼마전 상담원 단합대회로 저녁모임이 있었는데 대부분 앞편 한 사람들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노래방에서 놀라운 변신을 해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됐고 특히 '홍콩아가씨'를 너무나도 간드러지게 부른 모 상담원은 그날로 '홍콩아줌마'라는 애칭을 얻었고 민우회 가수로 등단하라는 권유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의 하나로 벌인 '음식물 생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작년 중계2동이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노원구 아파트 13개 단지 2만2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훌륭한 퇴비의 원료가 되는 달걀껍질, 과일껍질, 야채 다듬은 것들을 모아 주 1회 수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생쓰레기는 팔당의 상수원내 유기농가에 보내져 퇴비를 만드는데, 초기에는 몇몇 운영위원회 해당지역 회원들이 모두 나와 고무장갑을 끼고 썩은 음식찌꺼기를 골라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냄새나고 썩은 음식찌꺼기를 골라내는 작업은 쉬운일이 아니었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 끝에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되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회원들의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지요.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4년째 이어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작년에 3명의 구의원을 배출한 데 이어 민선구청장과의 간담회, 여성의원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여성·복지·환경부문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해도 빠짐없이 발간한 방청보고서 「지역살림은 우리 손으로」는 96년 정기의회 첫날 노원·도봉구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꼼꼼히 읽어보고서 자기들의 행동이 그대로 기록됨을 알았는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새로 구성된 2기 구의원들은 민우회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의 역할과 의미를 모른 상태였습니다. 감사기간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하기는커녕 빈손으로 드나드는 의원에게 "의원님, 감사자료 많이 준비하셨어요?"라고 말을 건네면 "감사는 무슨 감사야. 공무원들이 어렵히 잘 알아서 하는데..."라고 당당히 응수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나 꼭 1년이 지난 이번 정기의회 감사장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몇 안되는 우리 방청단에게 연신 고생하신다고 인사하고 심지어 어느 의원은 "불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양해해 달라"는 말까지 하니 우리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지요. 자녀와 함께 방청하며 아이의 교육에도 도움이 됐는데 숫자가 워낙 부족해 열심히 일하는 민우회 출신 의원들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는 듯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방청하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고 우리 회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

으면 합니다.

한편 상반기에 대폭 늘어난 회원들에 대한 배려로 월례회를 가져야 한다는 우리 생협회원들의 강력한 주장에 월례회를 마련했는데 아쉽게도 소수의 회원만이 참가했습니다. 힘이 빠져 낙심하기도 했던 생협회원들은 다시 힘을 내 '회원들이 안 오면 우리가 가야지' 하며 내년에는 공동체 간담회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아이키우기와 남편 뜻 받들다가 자기 주장 한번 못해봤다는 한 회원은 여성학강좌를 통해 새로운 눈으로 삶을 보게 되어 그것이 너무 기쁘고 이제는 그 깨달음을 주변의 다른 주부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사회와 단절되어 자신감을 잃어버린 많은 주부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조금씩 힘을 합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깨끗한 환경에 성차별·성폭력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동북지회 민우회원들은 지난해 만큼이나 97년에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분당지회

생협활동으로 만드는 녹색환경을 꿈꾸며

이길랑 지회대표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오늘 중으로 할 일을 생각한다. 우선 해야 할 일의 순위를 결정해 본다. 오늘은 12월 월례회가 있는 날이다. 연락을 해도 통화가 안되었던 회원 집에 애써 전화를 하지만 오늘은 바쁘다고 한다. 연젠가부터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회원들이 한둘씩 늘어 걱정인데, 같이 가기로 한 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으니 먼저 가라고 한다. 아직 준비를 못한 상태이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 빨리 가지 않으면 늦을 것 같다. 그래도 옆 동네로 전화를 해 같이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일이 있어 안된다 한다. 미리 준비 못한 나를 책망해 보지만 이미 늦었고 어렵게 차를 타고 가니 월례회는 이미 시작됐다.

매주 금요일 소모임 장소로 빌려 쓰고 있는 쌍용화재플라자 지점장의 보험상품 소개가 진행중이다. 매주 모이는 회원의 수가 빌려준 측에 미안할 정도라 월례회 때에 상품을 소개할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강의를 맡은 화장품 회사에서는 미용사원들과 강사분이 와 계셨다. 12월 월례회는 미인이 많기로 소문난 분당지회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다른 달보다 조금 부드러운 주제를 하기로 한 것이다. 회원 중 두사람이 모델이 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후, 질문을 받고 민우회의 소개, 지회의 얘기들을 했다. 새로운 회원이 거의 없어서 소개는 짧게 하고 97년 1월의 월례회 일정을 알렸다. 1월은 방학 중이라 소모임은 잠시 쉬고 대신 월례회에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 보았다.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자녀와 함께 하는 환

경기행으로 환경탐사와 산지견학을 겸해 <화성한과>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모두들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월례회 주제 강의 뒤에는 바자회가 있었다. 작거나 안입는 옷가지, 책, 완구 등을 가져왔는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이상조기한파로 큰 손실을 입은 유기농 김장재배농가에 위로금으로 보내기로 되어있었다. 바자회의 물건가격을 평소보다 조금 올려서 책정했는데 모두들 취지를 알아서인지 아무 불평 없이 사 갔다. 예상한 금액보다 모자라는 것은 지회에서 채워 보내기로 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조금 있으니 생협이 생활재가 도착하였다.

요즘 분당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가격과괴 바람이 불고 있다. 회원들간에도 생협의 물건 값과 개장기념 가격과괴 값을 비교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나 역시 알뜰한 월급 봉투를 놓고 저울질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생협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공동체 모임을 사랑하는 생협회원들에게는 일시적인 유혹이었다고 본다. 대량생산은 대량소비를 부르고 그후엔 대량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이어짐을 아니까.

두 달 전부터는 생협공부모임이 까치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꾸려져 『소셜 복합오염』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였다. 다음엔 『공업사회의 붕괴』라는 책을 공부할 것이다. 이 공부를 통해 나도 막연하게 좋은 먹거리를 가족을 위해 먹는다는 단순한 논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농약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 폐수와 합성세제로 인한 물의 오염,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등 우리 주변은 온통 오염물질이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의학계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들 질병의 70% 이상이 식품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 물과 공기와 식품에 함유된 중금속, 농약, 화학물질이 복합오염을 일으켜 우리의 생명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으니, 공해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삶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삶을 보장해주는 공동체적 삶. 이런 가치관이 뿌리 박히지 않는한 우리들의 식탁은 불안의 연속일 것이다.

30여 년 전 내가 어렸을 때는 반딧불을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어딜 가도 콘크리트빌딩뿐 숲이 없는 도회지에서 그런 것들은 밀려나고 그만큼 환경오염은 심해졌다. 다시 회복하는데는 잃어버린 30년의 몇 배를 기다리고 노력해야 할지... 나는 민우회 생협회원이라면 생협관련 도서는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가치관이 뚜렷해야 농촌과 우리의 식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당지회의 공동체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휴면공동체가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 생협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회 대표로서 분당지회의 96년을 되돌아보니 의욕만 앞섰던 상반기와 회원관리에 충실하지 못했던 하반기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97년은 좀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회를 위해 헌신했던 운영위원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일산지역모임

“야생마처럼 달려온 한해였어요”

김 인 숙 지역모임대표

스가쁘게 달려온 1996년. 저희 일산지역모임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단거리 달리기 후보선수로 뽑힌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보냈던 날들의 연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삭막한 아파트 베란다 창 밖으로 보이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들을 바라보며 '일산에는 언제쯤이면 민우회 모임도 생기고 생협생활재도 많이 볼 수 있을까?' 하는 바람을 품었던 우리가 민우회 모임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어느 시인이 노래했던 잔인한 달 4월의 어느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산모임은 곧바로 여성학 공개강좌, 월례회, 민우여성학교, 산지일손돕기, 의회방청 등 무엇하나 거칠 것 없는 야생마처럼 날마다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거리에서 여성학강좌 전단을 돌렸고 이른 아침 지하철역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호소문을 배포하고 혹시나 데라지나 앓을까 가슴 졸이면서도 열심히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뛰는 몇몇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함이나 동조의 기색을 보이는 회원들은 농치지 않고 꼭 잡아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노력봉사하는 운영위원으로 추대하는(?) 재빠른 스카웃작전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언제나 육아와 가사, 민우회 활동 때문에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접어두고 만성피로와 인력난에 허덕이는 우리 일산모임, '도대체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주부들은 모두 어디서 무엇들을 하고 있을까?' 이처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운동인 민우회 활동을 모르고 지내는 주부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야... 이런 자화자찬을 하며 우리 모임 운영위원들은 오늘도 가장 시급한 문제인 오락부장 모셔오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올해의 지회모임 분위기가 너무 고상했다는 종합진단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맛있는 빵도 구워오고 향기 좋은 차 끓이고, 김밥에 잡채를 만들어 정발산과 호수공원에서 운영위원회와 월례회도 열고, 야참! 봄이 되면 나물도 캐러 가야지요.

일산모임 회원 여러분, 1996년 한해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저희 일산의 튼튼한 기초가 되는 소모임활동을 생생히 소개해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민우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비디오촬영 소모임>

"애들아, 저게 수련이라는 꽃이야. 너무 예쁘지? 아니 여기 민물새우도 있네. 어머 이 송사리때 좀 봐."

일산 호수공원 끝자락에는 자연학습장과 함께 도심에서는 보

기 어려운 송사리, 민물새우 등이 이끼 낀 물속에서 그들만의 평화로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보물섬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 같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늘은 첫번째 야외촬영을 나온 날.

이제 겨우 비디오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잡고 찍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임재현 강사님의 강요에 못이겨 우리는 그만 겁도 없이 야외촬영에 나서고 말았습니다.

절음마를 갓 시작한 딸의 모습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찍는 회원, 작은 숲 한쪽에 수줍게 피어있는 들꽃들을 카메라에 담는 회원, 그 옆에서 강사선생님은 열심히 야외 강의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고추잡자리를 잡으려 쉴 새 없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한쪽의 수채화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지요, 이렇게 연습하다보면 언젠가는 멋진 환경작품도 만들 수 있겠지요?

〈문화기행 소모임〉

황병기 님의 거문고 가락의 여운 덕에 한국적인 정서에 푹 빠져버렸던 감정의 흐름은 이국(異國)의 정서로 천천히 옮겨져 네 편의 사랑이야기에 몰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얼굴모습, 얇은 미소로 두 남녀의 진실한 사랑을 격려해 주는 표정,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애절한 사랑의 안타까움에도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야 하며 달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무슨 영화의 한 장면같은 이야기냐고요? 바로 저희 일산모임의 문화기행 소모임 스케치입니다.

이 날의 주제는 「구름 저편에」라는 화제의 비디오 감상, 일산을 대표하는 문화주부인 이희란 회원의 작품선택은 문화기행팀 간사로서의 유감없는 실력 발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수준 높은 안목은 역사공부교재 선택, 지역유적지 탐방, 인사동 화랑거리 순회, 운현궁 미술관 견학 등에서 어김없이 빛을 발해 문화지수 제로였던 저희 회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등공신이 되었지요. 지난 일년 문화기행팀의 발자취는 우리 일산모임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아마 올해에도 물려드는 신입회원 때문에 즐거운 비명소리가 들릴 겁니다.

생활협동사업부

김장공급을 통해서 본 생활

강 해 숙 구매담당간사

생활협동사업부는 날마다 주문받고 공급하는 업무의 반복 속에 한해를 마감하는데, 그 업무의 집약이 바로 김장공급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활협에서는 김장배추공급이 한해의 큰 행사 중의 하나이다.

여름부터 생산자와 대략의 주문량을 계약하고 가격을 논의한 다음 한 달 전부터 김장공급에 대한 홍보를 내보낸다. 주문마감일이 가까와오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김장주문을 하셨냐고 물어보며 독려하고, 예상보다 주문량이 적으면 전화를 걸어 재차 독려한다. 주문이 마감되면 한 차량당 공급할 수 있는 양에 맞춰 지역을 구분하고 코스를 짜는데, 마감 후에도 회원들이 주문해오면 이 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척 곤란하다. 좋은 생협이 배추를 한 포기라도 더 이용해서 맛있는 김장을 담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최대한 추가주문을 받으려고 하지만, 어떤 회원은 더 받으면 좋은 줄로 알고 코스에 맞지 않은 곳도 주문을 하고 심지어는 시골에서 배추를 가져왔으며 공급일이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취소가 뭐 그리 어렵냐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이번 김장공급은 시기가 빠르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2월 7일, 8일을 공급날짜로 정했다. 그런데 11월 29일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틀동안 전국에 눈이 몰아치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홍성에 연락을 해 보니 배추가 얼어서 공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김장공급이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급하기 힘들다니! 홍성의 생산자들이 하루종일 이발 저발으로 피해 정도와 언 정도를 파악해 보니 5만3천여 통 정도 수확을 예상한 것이 얼어서 약 만 통 정도만 공급 가능하였다.

생활협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부족한 물량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특히 절인배추는 기술과 경험이 없으면 실패하기도 쉬워 결국 절인배추의 공급을 포기하였다. 절인배추를 주문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공급을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와서 공급을 못해주면 시중 배추값이 얼마나 비싼데 어떻게 하느냐며 화를 내는 분, 회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냥 예년의 시기로 공급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분 등 회원들의 반응도 여러가지였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정애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며 그대로 전화를 끊기도 하였다. 그래도 홍성의 생산자들 피해가 심한 것을 가슴아파 하면서 안타까와 하는 분과 통화를 할 때는 나눔의 의미가 다시 떠오르면서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했다.

올해는 홍성의 배추상차작업을 감독하고 현장과 연락을 긴밀히 하기 위해 구매담당자인 내가 직접 산지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김장을 공급하기 하루 전날 홍성 풀무생활협에 도착하여 배추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흐려지더니 눈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점점 세어지는 눈을 헤치고 박종구 생산자덕에 도착하여 같이 배추를 차에 싣고, 풀무에서 양념류를 다 싣고 밤 11시경이 되어서야 서울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다음날도 오전부터 눈이 흩날리기 시작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박종구 생산자가 갑자기 배추작업을 하루나 이틀 정도 연기할 수 없다는 전화를 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오늘 꼭 작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어제 내린 눈과 추위로 인해 배추상태가

아무래도 안좋은 것같다며 날씨가 좀 풀리면 더 좋은 배추를 공급할 수 있으니 연기하자는 것이다. 생협이 유통구조를 너무도 모르는 태연한 말씀에 한숨이 나왔다. 배추를 차에 싣기 위해 2시경 밤에 도착하니 배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다 같이 달려들어 4시간동안 추위에 떨면서 배추를 싣고보니 6시경이었다.

올해 김장공급은 포기가 유난히 작아보인다 싶은 데는 한 포기라도 담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과 공급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작년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갓이 추위로 언데다가 단도 영성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코스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무실에 항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공급이 끝나고 난 뒤, 해마다 배추가 맛있어 주변에 권하고 선물도 했었는데 올해도 배추가 고소하고 무는 아삭아삭하여 참 맛있게 먹고 있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김장공급의 어려움과 피로가 한번에 가시는 느낌이었다. 또 생산자들의 피해를 마음아파하면서 위로금을 전하고 무 더 팔기를 숭선수범한 지회와 회원들도 있으니 큰 힘이 되었다.

가족과 성 상담소

사랑으로 뭉쳐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들

유 경 희 교육부장

첫 돌을 지낸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대견해 한다. 특히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감격을 맛보게 된다. <가족과 성 상담소>의 96년이 첫 돌 지나 걸음을 댄 아이의 모습이라면 상담소에 애정을 갖고 있는 상담원 선생님들과 실무자들이 바로 그 엄마의 입장일 거라는 생각을 해 본다.

상담소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바쁘다 바빠'였는데, 그중에 우리 민우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몇가지 있다.

우선 상담소에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함께 하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 진실로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다. 상담원 한분 한분이 3차의 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나아가 전문성을 키우고자 애쓰는 분들이라는 것도 자랑스럽고, 상담소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많은 일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활동의 폭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싶다.

상담소에서는 다양한 가족문제와 성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전화가 꾸준히 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물론 상담원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열정이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때때로 상담 후 자신과 주변의 긍정적인 변화에 고마움을 전해오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는 상담원 선생님들에게 힘과 보람을 동시에 안겨주며,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하는 즐거움을 가까이에서 확인하게 된다.



한편 96년은 소모임이 활성화된 해였다. 보건복지부 지정 성폭력상담원 교육위탁기관인 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로 등록되어 성폭력상담활동을 하면서, 성폭력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성교육에 초점을 둔 사업이 진행되어, 중고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굵직한 2개의 행사를 치렀다. 5월의 '청소년 성의식과 성문화', 9월의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그것인데, 이를 통해 청소년 성의식과 성문화, 성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 가정과 사회 모두 대처방안 연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조사와 행사를 기반으로 12월에는 청소년 성폭력예방 길잡이 '내몸의 주인은 나'를 발간하였다.

소모임 중 '성교육팀'은 적극적인 학습과 실습을 해 팀원들이 성교육의 모델을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전문성도 확보했다. 성교육강사로 학교 같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했으며 강사비로는 상담소에 후원금을 내 주시는 한편 강사력을 내느라고 초과 지출을 하면서도 즐거워했다. '집단상담팀'은 P.E.T(부모역할훈련)와 성장상담실습을 했는데, P.E.T를 통해 집단상담의 틀거리를 익히고, 성장상담을 통해서도 실제 프로그램을 익혔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상담원들 간의 정은 더욱 돈독해졌고, 개개인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거기에서 실천에 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까지 했으니...

상담소 소식지 '디딤'은 이름을 새로 얻고 제간지로 만들어지면서 더욱 알차졌고 상담소 홍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딤편집팀이 상담원으로 구성되어서 실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상담원들의 시간외 상담 자청, 간식 챙겨주기, 상담소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마음 등 애정어린 관심들은 실무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실무자들도 참 바쁘게 살면서도 서로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있다. 각기 독특한 성격—어려운 일도 쉽게 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는 양혜경 선생님, 일은 확실하게 하고 꿈을 잃지 않는 안혜성 씨, 굵은일도 마다않고 항상 웃는 홍정순 씨,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하며 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유경희—을 갖고 있지만 마음 깊이 정이 있기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97년에는 인간적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여유가 좀더 생겼으면 한다.

동북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는 '열린음악회'를 마련하면서 동북지회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상담소의 발판도 마련했다. 꾸준한 상담 속에 하반기에는 슈퍼비전과 성교육중심의 학습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뿌리 내리는 상담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동북 상담소는 지회 특유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힘으로 상담원간의 결속력을 단단히 하고 있어 부러움을 받고 있다. 권석경 상담부장과 김성미 간사의 상담에 대한 애정과 팀워크, 상담원들의 열정을 볼 때 97년의 활동이 기대된다.

민우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상담소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한걸음 나아가 직접 참여하셔도 좋고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부

민우회 활동에서 행복을 느끼길 바라며

명진숙 사무국장

주 부분과에서 <생활자치여성센터>라는 멋진 이름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1996년도 지나갔다. 민우회의 96년 중점사업은 무엇보다도 '생협회원 1천명 확대활동'이었다. 이를 위해서 2월중에는 일본생협의 경험을 배우는 일본연수와 회원 대상의 지역활동가 훈련이 있었는데, 회원들이 회원증대방안을 논의하면서 회원확대의 주체가 바로 자신들임을 알 수 있었다. 꽃피는 3월을 맞으면서 본격화된 생협회원 확대활동에는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전단과 홍보활동이 등장했다. 연노랑 색깔의 생협홍보전단에 재미있는 만화, 전문가 의견을 넣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도록 만든 것이다. 또 시중과 확연히 다른 우리의 생활재를 대할 수 있는 '시식회'를 열었고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협회원으로 가입하였다.(물론 시식회 비용이 많이 든 것이 흠이었지만)

그런데 생협회원 확대가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해, 약 500여명의 회원이 늘어난 것에 만족해야 했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운동성을 포기하고 양적 성장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의 우려(?)를 계속적으로 덜어내는 노력도 함께 해야 했다. 생협운동의 특성상 운동성과 사업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배경에는 민우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직확대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회활동의 편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개한 회원확대활동이 일부 지역활동가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보다는 있던 힘까지 소진하게 만들었다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생협회원 확대활동은 회원과 실무자 모두가 함께했던 활동으로서, 여성대중운동단체인 민우회에서 회원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고, 동시에 민우회 활동의 위상 및 과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녹음이 짙어진 5월, 민우회 활동은 여성의 성상봉화에 대한 대책활동으로 모아졌다. '방송의 미인대회 중계저지활동'은 토론회 개최 및 MBC앞 항의시위로 이어져 사람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MBC앞 항의시위 때에는 못생긴 여자들만이 미인대회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 '가면을 쓰고 항의하자'는 회원, 미인도 미인대회를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쁜 사람들만 뽑아 시위를 하자'는 회원, '몸매를 드러내지 않게 몸매(?)바지를 입고 시위하자'는 회원 등 재미있는 제안을 하는 이도 있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주년을 맞는 6월에는 서울시정·시의회 1년 평가 활동과 서울시민 한마디 제안사업이 있었다. 이제까지 있었던 민우회 행사 중 가장 높으면서도 넓은(?) 장소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 활동은 장소만큼이나 민우회 위상을 높인 행사였다.



서울시민 한마디 제안 사업은 시민들의 지역살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행사당일 계속 비가 오자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려들었고, 주황색 티셔츠로 무장한 행사팀은 쉽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낼 수 있었다.

이어 8월부터는 '매매춘에 대한 대책활동'이 이어졌다. 직업 보도소에 의한 주부매춘 문제가 제기되면서 8월에는 매매춘현실에 대한 진단을 위한 토론회를, 11월에는 윤락행위등 방지법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하반기에는 민우회 조직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활동이 많았다. '민우회원의 힘모으기, 힘나누기'를 주제로 10월에 열린 지회운영위원 워크숍은 회원들이 모두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아이들에게 민우회 활동으로 바쁜 엄마를 잘 봐달라는 당부(?)를 하는 기회도 되었다. 민우회의 전설적 인물들과 함께 한 12월의 '정회원 송년모임'은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의 반가움과 수다가 가득한 자리였다.

이처럼 1996년은 많은 활동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였다.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애정으로 이루어진 민우회의 96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민우회에서 활동할 때가 제일 행복했노라"고 말하길 기대하면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일까? 

미디어를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김 정 민 「함께가는 여성」 편집간사

지난 12월 27~29일까지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제3기 「어린이방송학교」의 이모저모를 담아보았다. — 편집자

텔레비전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고, 우리들은 텔레비전의 내용이 좋건 나쁘건 관계없이 항상 접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동안 시청자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방송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는 존재로서 머물러 있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텔레비전은 세상을 내다보는 창이며 세상을 가르치는 친구이기도 하기에 텔레비전이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당연히 요구해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어린이들은, 사회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 계층이 아니라는 것, 어리고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프로그램 제작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이 '시청자주권'의식을 갖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이 바로 「'96 어린이 방송 학교」이다.

어린이들은 교육적인 내용보다는 코미디나 쇼, 드라마 등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훨씬 자연스럽게 세상을 배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행동양식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텔레비전의 오락프로그램이 교육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텔레비전 꼼꼼히 들여다보기", "좋은 프로그램 나쁜 프로그램 뉘끼"가 필요하다.

꿈이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좋은 영향뿐 아니라 나쁜 영향까지 함께 받고 있기에 스스로



방송학교는 어떻게 운영될까?



자신의 생각이 담긴요리 편집으로 들어간다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움직인다



원자리에 모인 미래의 능동적 시청자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시청규칙"을 만들어 실천하면서 텔레비전을 좋은 친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한편, 시청자 입장에서 벗어나 "뉴스"를 직접 "제작"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방송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갖게 되며, 방송제작자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말없는 시청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방송에 대한 불만 혹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절한 통로로 의견을 반영하는 경험을 가졌다.

미래의 주인공이자

21세기 방송문화를 책임질 중요한 집단인 어린이들이 모조리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청자로 성장하길 바란다.

'96 어린이방송학교 TV 시청규칙

1. 바른 자세로 TV를 본다.
2. 폭력물이나 성인 프로그램은 보지 말자.
3. TV보는 시간을 줄이자.
4. TV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편지로 방송국에 보내자.
5. 시청할 프로그램을 부모님과 의논하여 함께 시청한다.
6. 자기 할 일을 다하고 TV를 본다.
7. TV 시청일기를 써본다.



비참한 교육현실, 대안은 어디에...

서 형 민 도곡중학교 2년

유경희 회원 자녀인 서형민군이 연극관람기를 써주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가 후원한 '교실이데아'는 극단 <한강>의 교육개혁을 위한 기획공연이었습니다. — 편집자

현 재의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은 어른들이 흔히 말하듯 우리 나이가 갓는, 아니 갓기를 원하는 순수함이나 감성을 병들게 하고 삶을 맥빠지게 하기도 한다. 이런 입시지옥 분위기 속에서 학교는 우리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역할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을 숨막히게 하는 데 여러모로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의 이런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는 작품이 바로 연극 '교실 이데아'이다.

연극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식 장면부터 시작한다. 자유롭게 웃는 모습으로 등장한 신입생들은 군대식 교사의 등장과 함께 경직되고, 그들의 자유는 억압당한다. '너희들은 3년간 인간이 아니다.' 라는 교사의 말이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정해진 틀에 얽매인 나이는 교사가 등장하자, 각 학생들 소개가 방백으로 진행된다. 오토바이에 미친 아이, 서태지를 너무도 좋아하는 아이, 가난하지만 조각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지만 선생의 구타로 발목을 다쳐 더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이 등, 그리고 수업이 시작된다. 사고력과 감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국어수업이 시험에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도록 강요된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발버둥친다.

그러던 어느날, 교사가 죽어 시체로 발견되고 학교측은 학생 중에서 범인을 추적한다. 학생들은 범인으로 물리지 않기 위해 숨진 교사에게 당했던 일들을 부인한다. 그러나 점점 교사의 악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유없는 구타와 인격을 무시한 행동, 특정한 학생만 편애하는 행동, 심지어 성희롱까지. 그 뒤로도 계속 교사의 만행은 드러나고, 학교측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잡히지 않는다.

한편, 교사가 없는 동안 교실은 행복감에 젖고, 록 음악 페스티벌과 함께 그들만의 파티가 벌어진다...

그러나 교사가 다시 등장함과 동시에 그런 기쁨들도 사라져 버린다. 극의 마지막에는 다시 신입생 입학식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계속적인 악순환을 암시한다.

연극 '교실 이데아'는 우리나라 교육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연극의 기획 의도가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극은 단순히 문제점들을 나열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즉,

단편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 본질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은 모색되지 않고 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내가 보기에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시간은 파분하기만 할 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줄거나 편지를 쓰거나 쪽지를 돌리는 등 공부외의 것에 관심이 가 있고,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부 상위권 학생들과 단순히 착실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합쳐 10~20%가 될까 말까하는 정도이다. 공부하려는 학생이 얼마 없으니 자연히 수업 분위기가 좋을 리 없고, 조금 만만한(?)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과연 이게 학교 수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란한 분위기 속에 수업이 진행되기 일쑤다. 수업시간에 안한 공부는 거의 강제로 다니는 학원 수업이나 과외로 보충하면 되므로 놓고 있는 학생들은 꽤 여유롭다.

오토바이에 미친 아이,

서태지를 너무도 좋아하는 아이,

가난하지만 조각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지만 선생의 구타로
발목을 다쳐 더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이

.....

안 그래도 공부는 지겹기만 한데 과목 수는 또 왜 이리 많은지...

더군다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 수는 늘어만 간다.

국어, 영어, 수학, 물상, 생물, 사회, 국사,

가정, 기술, 음악, 체육, 미술, 도덕, 한문...

중학교 2학년이 배워야 할 과목들이다.

안 그래도 공부는 지겹기만 한데 과목 수는 또 왜 이리 많은지... 더군다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 수는 늘어만 간다. 국어, 영어, 수학, 물상, 생물, 사회, 국사, 가정, 기술, 음악, 체육, 미술, 도덕, 한문... 중학교 2학년이 배워야 할 과목들이다.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입시라는 명목 하에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들까지 억지로 해야 하니 공부 자체가 재미있을 리가 없다. 또 일부 예체능 과목의 필기 시험은 실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단순 암기 능력 테스트이다. 그럴바엔 차라리 실기 시험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한 과다한 과목수는 전문적이고 분업화되어가는 직업의 호

를 볼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이 우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적성에 맞지 않는 국, 영, 수 과목을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일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중요과목이 아니라서 포기해야 하는 일은 참으로 웃지 못할 현실이다. 교육이 입시 위주이다 보니 대학에 들어갈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내가 대학에 합격하려면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 친구도 입시 앞에서는 적이고 경쟁자이니 학생들간에 이기주의만 부추기는 것 같다.

분명히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적부터 '공부! 공부!' 하는 뉘달에 지쳐 '공부' 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연극 '교실 이데아'는 우리의 열악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교육

현실을 잘 짚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교육을 완전히 뒤집어 엮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잘 조화된 해결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은 없다. 답을 고치고 또 고쳐서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답이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과 한방 ④ • 주부의 변비(便秘)

가족 뒷바라지에 바쁜 주부, 여유를 갖는 것도 변비의 예방

고 광 순 <홍명현의원> 원장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장은 영양분을,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직장으로 내려보낸다. 이 직장에 변이 차게 되면 척추 아래쪽 꼬리뼈에 있는 배변 중추를 자극하고 내항문 괄약근을 이완시켜 배변하게 되는데 외항문괄약근은 대뇌에서의 수의적인 조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배변행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방귀(放氣)도 끼지 않는데(한밤중에 옆사람이 방귀를 끼었다면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이는 우리 몸의 미세한 기의 흐름도 의식이 깨어 있어야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막강한 물질(변)의 이동이야 얼마나 민감하겠는가?

처녀적에는 규칙적으로 배변하던 사람도 결혼 후 출산을 겪으면 변비가 되는 경우가 흔한데, 그 이유도 앞서 말했듯이 배변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배고픈

아기의 울음소리에 놀라 깨자마자 우유를 준비하거나 아침부터 출근준비와 등교준비에 종종걸음을 치는 주부에게는 방귀를 뀌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형편이니 어찌 변비가 생기지 않겠는가. 또 주부의 변비는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변이 직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고 배변시 오래 앉아있거나 아랫배에 힘을 주게 되면 그로 인해 치질이나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변비를 원인별로 소화기가 실해 열 때문에 진액이 고갈되는 실증과 소화기가 허한(虛寒)하여 장운동이 무력하게 되는 허증 둘로 나눈다.

젊은 여성들이 미용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면 내부에는 건조한 열만 생겨 변비가 되기 쉽다.

실증은 대황, 망초 등 약성이 강한 것으로 내부의 열을 치고, 노인들처럼 기가 허하여 진액이 부족해 변비가 된 경우는 당귀, 숙지황, 도인, 마자인 등의 순한 약으로 보혈을 하거나 변을 부

드럽게 하여 배변을 돕는 방법을 쓴다. 또 주부들처럼 기체(氣滯)로 인한 변비에는 향부자, 집향, 목향, 빈랑 등의 약재를 첨가할 수 있다.

흔히 새벽에 냉수를 마셔 장을 자극해 변비를 해소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칫 소화기를 허한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를 마시으로써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혹은 저녁에 마른 다시마를 한 컵의 물에 담가 뚜껑을 덮고 실온에 두었다가 아침에 우려난 물과 다시마를 함께 먹으면 변비완화에 도움이 된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구조는 하나의 파이프와도 같아서 위에서 음식이 들어오는 한(중풍, 의식불명을 제외하고) 변은 밀려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배변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변비약을 상복하는 것은 좋지 않고 대신 섬유질이 많은 음식, 따뜻한 몸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보자. 

마라톤 같은, 주민위한 행정으로 가는 길

김은경 노원구의회 의원

민우회가 배출한 6명의 의원 중 김은경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중 겪은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했다. 바른 정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의원 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 편집자

지난 96년은 유난히 길고 힘든 마라톤 같았다. 11월 13일부터 시작된 마지막 임시회의에 이어 곧바로 이어진 정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결정된 12월 24일 오후 4시경까지는 한 편의 긴 드라마 같기도 하고 잠시도 방심하기 어려운 한판승부를 치른 것 같기도 하다.

아직 스스로 활동의 특질을 가려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보진 못한 상태이지만 나로서는 가장 생생한 기억인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서울신문은 회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당 홍보지나 다름이 없고, 주위에서 돈내고 구독하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도 신문사가 망하지 않는데,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구마다 통·반장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신문을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으로서 당 대변지나 다름없는 신문을 갖고 있으니 좋고 신문사는 애쓰지 않고 구독료를 챙기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고 억울한 건 세금내는 국민들뿐이다.

서울신문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맡게는 2억, 적게는 몇천만원씩을 받아가는 것이 언제부터 내려온 관행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초대의회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심의 때마다 서울신문 구독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곳이 없었고 논란이 일지 않은 회기도 없었다.

예결특위서 삭감된 구독료가 본회의장에선 다시 부활

노원구의회에서 94년 예산을 심의하던 때에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부활되어 거센 항의가 일기도 했었다.

작년에 심의한 96년 예산안에는 서울신문 구독료가 1억3천5백만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이는 95년도에 비해 50% 정도가 삭감된 금액이었고, 의회에서는 오랜동안의 실랑이 끝에 96년 한해 동안 서울신문이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7천7백만원을 반영해 주기로 했었다. 예산안이 통과되던 날, 대부분이 초선인 의회의 첫번째 예산심의라는 한계속에 여러 예산항목을 밀고 당기는 타협 끝에 겨우 건진 초라한 성과를 놓고 한참을 울었던 생각이 지금도 새롭다.

더 심각한 문제는 96년 추경예산이었다. 심의 1주일 전에 미

리 받아온 추경예산안에 서울신문 구독료가 다시 1억1천만원이 올라온 것이다.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터라 어이없고 화도 났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서울신문측에선 2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의원들의 기사를 살았었다는 사실이다. 서울신문 기자가 갑자기 구청홍보실로 동사무소로 나를 수소문해 인터뷰를 하자고 줄라서 어렵게 시간을 냈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그렇게 줄라대던 것과는 영 판판으로 굴어서 기본이 상했던 일이 있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노원구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었던 것이 모두 추경예산에 구독료반영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던 것이라니! 신문기사라는 것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편집될 수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민우회 출신 여성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생활자치실현을 위한 의원 간담회'

아이러니랄하게도 서울신문의 이러한 로비성 기사는 야당의원의 속성을 잘못 파악한 것으로 오히려, "서울신문 기사 때문에 로비하는 것 아니냐?", "서울신문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까봐 당사자들이 서울신문 예산삭감에 반대발언을 하기도 어렵게 했다.

구청측의 로비도 만만치 않아 동원가능한 거의 모든 연고를 통해서, 민원해결을 걸어 서울신문 구독료 반영을 설득해왔다. 추경예산심의 마지막날 밤 9시를 넘겨서 어쨌든 서울신문 예산은 전면 삭감으로 통과되었다. 밖에서 예산심의를 지켜보던 서울신문 기자가 예산심의의원에게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어디 두고봅시다..." 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뒷얘기를 들으며 참으로 씁쓸했었다.

이번 97년 예산안에는 아예 2억4천7백8만원이 구독료로 편성되어 올라왔다. 정기회기를 앞두고 가졌던 성북·강북·도봉·노원의 젊은 의원모임에서 이번에는 모두 전액삭감을 목표

로 하자는 다짐도 있었고, 노원구의회 내부에서도 추경예산 때의 언짢음이 남아 전액 삭감에 이의가 없었다. 소속 상임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전액삭감하되 소수반대의견이 붙어져 예결특위로 넘어왔다.

구독료 삭감 주장에 구청은 감정적인 대응을

16일부터 시작된 예결특위 첫날 역시 서울신문 구독료예산에 대해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결정은 마지막날로 미루었다. 18일, 일정대로 하면 특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연구회의(국민회의와 일부 무소속) 3명과 동우회(신한국당과 무소속 일부) 2명이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나 계수조정에서도 서울신문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다시 예결특위에서 전액삭감에 반대하는 동우회측의 주장과 연구회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실제 더 큰 문제는 동우회의 반대가 아니라 구청측이, 서울신문 구독료를 전액 삭감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주장한 증액 및 신설항목에 대해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산심사시 예산의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으나 증액이나 신설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은 구청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항목에 따라 증액이나 신설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건에 대해 이처럼 일괄 거부하겠다는 것은 구청측이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그 상황에서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서울신문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대신 52개 항목의 신설·증액 예산을 모두 포기하든가, 서울신문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신설·증액 예산을 조정해 통과시키든가 아예 예산심사를 미루어 정기회기 끝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 안은 언젠가는 타협을 해야 하고 협상기간이 길면 갈수록 강경한 입장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결국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의 전면 삭감과 일부 반영의 타협안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의회와 구청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예결특위의 예산안 통과예정일 18일을 넘기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법정기일인 21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전면삭감을 주장하던 의원들이 구청과의 날카로운 대립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타협쪽으로 기울어 21일 아침 연구회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이 회의에서는 연구회의 전체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협상을 하더라도 작년수준보다 낮게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52개 증액·신설항목에 전체를 반영한다는 조건이었다. 구청측의 협상안은 작년수준 7천7백만원을 반영해주는 대신 52개 증액·신설 항목 중 반 정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한번 협상안이 나올 때마다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원안대로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협상을 하자는 의원들은 한번만, 한번만 하기를 몇차례, 저녁 6시를 넘겨 7천7백만원 서울신문 예산반영에 44건 증액·신설항목 동의안이 최종안이 나왔으나 예결특위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다시 24일 아침부터 의

66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서울신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52개 항목의

신설·증액 예산을 모두 포기하든가,

서울신문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고 신설·증액 예산을 조정해

통과시키든가 아예 예산심사를 미루어 정기회기 끝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든가 하는 것이다.

99

건은 잊지라 뒤치라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계속했지만 마지막까지 전액삭감을 주장하던 4명의 의원들은 예결특위에서 반대의견을 남기는 것밖에 다른 희망이 없어보였다.

마지막 결정 순간 동우회측이 전원 참석하지 않아 연구회측 의원 9명에 자민련의원 1명, 10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속개되고 자민련 의원이 타협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했고 이어 내가 유송화 의원의 전면삭감안에 대해 찬성발언을 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못 비장하게 구청과 서울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치 못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계속 싸우겠다는 선포까지를 꽤 길게 이야기했다.

드디어 표결. 결과는 예상외로 전면삭감 6, 일부반영 4로 결국 서울신문 예산액의 전면삭감!

뜻밖의 결과를 얻고 나니 새로운 부담감이

이렇게 통과시키고 나니 이제 모든 부담은 다시 전면삭감을 주장한 4명, 특히 나와 유송화 의원에게 지워지는 것 같다. 그동안 원칙없이 타협안을 만드는 것 때문에 섭섭했던 의원들에게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구청과의 결고려운 관계도 걱정되고, 반발도 우려되고, 신설·증액 항목을 모두 포기해야 했던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원망도 걱정이 되고...

일반 주민들이 '정치'라는 말에 담은 부정적인 의미는 원칙 없는 타협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루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왔지만 막상 이제 그 부담앞에서 마음이 무겁다.

투정이라도 부려볼까? 애초부터 서울신문 문제를 이제 막 걸음마하는 의회에만 맡겨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고, 시민단체들이 좀 나서서 지지해주고 구청에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구청이나 동료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려한 것 중의 하나가 통·반장들의 원망이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통·반장들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신문은 요즘 유행하는 만득이 귀신처럼 올해 추경예산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무섭다고요! 

우리 손으로 일구는 정보화사회

정은숙 총무

만만치 않은 가격의 컴퓨터를 두고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부를 위해 정보화광장을 마련했다. 앞으로 연재될 이 지면은 초보적인 컴퓨터 조작법에서부터 시작해 통신공간에 나만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방법까지도 다루게 될 것이다. — 편집자

요즘 우리 사회는 온통 정보화 물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정보화 시대, 정보화 교육 등 정보라는 단어의 사용없이 하루도 그냥 지날 수가 없구요. 언제부터인가 초등학교인 자녀의 입을 통해서 인터넷, 네티즌, 채팅, 통신 등의 새로운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제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시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고(홈쇼핑), 은행업무도 집에 앉아서 처리할(홈뱅킹) 수 있습니다. 내일 날 짜 신문기사를 오늘 저녁 10시만 되면 먼저 읽을 수도 있고 재택근무나 영상회의 같은 노동현장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유통이 생산환경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여 결국은 정보화가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가상공간(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나 정보는 어떤 권위있는 학자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이 모인 결국 '우리'라는 공동의 힘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이버스페이스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막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쉬운 예가 가요표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낸 것과 사이버공간에서의 소설이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작년에 두 명의 일본인들이 시작한 인터넷상의 프랑스 핵실험 반대서명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세계적 여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와 보이는 정보의 이용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다수의 대중을 핵심적인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킬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혹 정보의 이용이 남성에게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여성이 지금보다 더 심한 성차별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텐데요, 차별의 이유를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공간에서 여성이 소외되고, 정치, 경제, 언론 등에서 여성 점유 숫자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

에서뿐 아니라 가상공간 안에서도 이미 성차별 현상—사이버스페이스에서 남성은 여성을 성(性)적 농담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음, 국내에서 이미 지난 92년 한 여중생이 PC통신을 통해 친구를 사귀려다 익명의 남자들에게 성(性)적 모욕을 당하고 비판자살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회의 가부장제가 자연스럽게 사이버스페이스에 옮겨져 남성위주의 사이버사회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에서 20% 여성할당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서도 여성의 점유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집에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남편의 업무용으로 컴퓨터를 큰맘 먹고 장만해 놓기는 했지만, 그것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안하셨을 겁니다. 다만 컴퓨터 위에 쌓인 먼지나 모니터의 얼룩은 열심히 청소하셨겠지요. 이제 주부들도 과감히 컴퓨터를 '켜' 보는 게 어떨까요. 정보화사회를 능동적으로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시다고요? 기계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거 몰라도 사는 데 불편함이 없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정보를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소외시키고 있는 현실을 그냥 내버려둘까요?

평범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이는 학교에서 정보화교육을 받고 남편도 힘들지만 뉘척지지도 않으려고 컴퓨터학원까지 다니고 밤새 통신공간에서 어떤 정보는 검색도 하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이와 남편은 컴퓨터 앞에 둘러앉아 그들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주부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합니까? 지창하게 '정보독점'이니 '소외'니 하는 말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아이와 남편이 공유하는 가족간의 대화에 주부도 당연히 참여해야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 우리네 어머님들께 세탁기를 사다 드리면 쓰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고 그냥 손빨래를 하시던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혹시 지금 주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쳐지는 않을까요?

이 순간부터 기계는 남자, 뜨개질은 여자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지워버리십시오. 편리한 기계가 남자들만의 향유물은 절대 아닙니다. 여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사회의 잘못된 통념일 뿐입니다.

자! 웬지 컴퓨터만 봐도 두드러기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건드렸다가 괜히 고장만 낼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먼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제 열린 정보세상으로 출발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로잡기

안혜성 (가족과 성 상담소) 연구부장

문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어요. 어느날 그 여자친구가 소매가 없고 가슴이 보일듯한 헛도리타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저는 땀지 기본이 아춧해지고 여자친구의 옷을 먼저보고 실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슴도 쳐다보고 속력 다리도 봤더니 그 여자친구는 막 한을 내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참 이상해요. 자신의 옷을 쳐다보거나 만지는 것은 싫어하면서 땀 뚫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까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답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지금 학생은 여자친구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것을 '몸을 만지는 것이 싫지 않거나 만져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하지요. 특히 이성을 만나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쓰지요. 학생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오기 전에는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거울도 한 번 더 쳐다보고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친구도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지요. 그러다보면 유행에 맞추어 옷을 입게 되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소 지나치게 노출된 옷을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나를 자주 쳐다봐 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만져도 좋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옷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원하지 않는 데도 성적인 접촉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타인의 시각을 자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니, 타인을 자극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옷차림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군요.

❑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과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성폭행이 전체 성폭행의 30%를 차지하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이다

성폭력은 계획된 범죄가 많으며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의 동기는 성충동보다는 자신에 대한 불만,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것에 연유하는 경우도 많다.

❑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고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강간범죄 발생건수가 인구 10만명당 9.8명으로 스웨덴,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의 아동기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성폭력이 나하고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른 사람들이다. 단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함이 약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표출하고 있는 잘못된 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가해자가 거의 모든 연령층에 걸쳐 있으며 학력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82.4%에 이르는 가해자가 고등학교 재학 이상이고 그 중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1/3에 이르고 있다.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충동적으로 발생한다

심한 추행의 경우에는 80.6%가, 강간의 경우에는 80.1%가 그리고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78.1%, 어린이 성추행의 경우에는 74.3%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들 중에는 데이트 상대, 애인, 친구, 선후배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밖에 선생님이나 직장상사, 이웃 사람, 심지어 친척이나 가족들에 의한 성폭력도 있다. 따라서 강간이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통념이다.

❑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법은 많은 경우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다.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쉽다. 여자의 저항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성폭력을 성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인데, 이는 성폭력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 남자는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남자 청소년들 역시 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 피해자에 비해 남성 피해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 실태는 더 복잡하다. 이들은 전적인 피해자로서의 정체감보다는 피해과정에서 본인이 동조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정서적 혼란과 죄책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한과를 세계의 맛으로 만들 때까지

송희자 〈화성한과〉 생산자

〈화성한과〉의 송희자님께서 새해인사와 함께 가슴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 편집자

간 호대학을 나온 내가 농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카톨릭 여성농민회〉의 무의촌보건사업 실무자로 일하면서였다. 고생도 많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농촌여성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진실함에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농촌에 내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후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정말 하루도 쉼없이 부지런히 일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실하게 농사지은 보람도 없이 해마다 2백만원씩 늘어남 빛은 어느새 천만원이 넘어버렸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삶의 돌파구로 생각한 것이 쌀가공이고, 정성껏 써서 말린 미숫가루를 만들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서울의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반갑게 맞이하며 사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우리는 원래 미숫가루를 안먹어' 하는 친구들 앞에선 길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정말 비참했다.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는 농민운동이라는 큰 뜻이 있기에 위로가 되면서 당장 생활고에 시달릴 때는 누구 원망할 대상도 없고 눈물만 무작정 흘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집에 희망의 빛이 조금 새어들었다. 89년 겨울, 한살림 이사장으로 계시던 정양숙 씨가 "쌀로 과자를 만들면 어떻겠니?" 하면서 강정 만드는 곳을 가르쳐 준 것이다. 당시 한살림에는 어린이를 위한 간식이 필요했었다. 새로운 용기가 나서 찹쌀을 찌고 말려 기름에 튀기고 쌀조청에 버무리니 맛은 참 좋았다. 하지만 달고 느끼해서였는지 우리 아이 친구부터 많이 먹지를 못했다. 맛있는 강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자문도 구하고 실험도 많이 했다.

한번은 무언가 도움이 될까 해서 수원에서 빵튀기를 만드는 아저씨를 찾아갔다. 그런데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할듯 하다가는 말고 입을 열다 달고 해서 나는 '무언가 대단한 비법이라 그럴겠지' 하고 한나절 내내 친구와 같이 아저씨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 딱하게도 그분은 입술을 보아야만 말을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셨다. 어쨌든 그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옛날에는 한주소금으로 튀겼지." 이 한마디를 보물처럼 가슴에 품고서 집으로 와 실험을 해보니 정말 잘되어 성공작이 되었다.

찹쌀강정을 만들어 한살림에 시험받으러 가는 길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른다. 한살림 현관에 도착하니 이런 표어가 눈에 들어왔다. "소비자에게는 건강을 생산자에게는 생활을" 내가 양심적으로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소비자에게 건강을 약



영업을 하고 있는 송희자님과 강정만들기 강의를 받고 있는 송희자님

속하고 고달팠던 생활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또 눈물이 쏟아졌다. 희망의 눈물이...

나는 우리가족에게 주어진 일을 귀중하게 여기며 한해에 한 가지씩 한과 품목을 늘려나갔다. 첫째에는 찹쌀강정. 그 다음엔 유과, 우리밀약과, 다식 ... 연습도 많이 하고 소비자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갔다. 물론 지금까지 유혹의 손길도 적지 않았다. 아줌마들은 "누가 보나, 사람 없을 때 조금씩 일반쌀 섞어도 되지 꼭 무농약이어야만 해" 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살림 현관에서 보았던 "소비자에게는 건강을 ..."이란 표어가 나를 신념에 찬 생산자로 만들었다. 94년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주는 전통식품자금을 받아 아담한 제조장을 짓고 동네 어르신,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바른먹거리 생산에 임하고 있다.

처음 유과를 만들어 생협에 내놓았을 때 소비자로부터 격려, 감사전화도 받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당신 집안의 비법을 알려주신 분도 있었다. 만약 일반 유통시장에 공급했다면 우리 한과는 벌써 사라졌을 것이다. 애정없이 흠만 잡으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직거래운동',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아는 유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는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꿈이 자꾸 야무져만(?) 간다.

우리의 순수한 입맛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들의 바른 먹거리를 목표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화성한과'를 가져가야 한국의 맛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맛과 모양에서 도약하는 것이다. 또 5년쯤 후에는 한과 연구소를 세워서 전통한과의 계승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그동안 맛있게 잠쉬주시고 칭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민우회 회원님들께 이 글로 인사를 전해야겠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먹는 입엔 즐거움, 나누는 마음은 기쁨

새해 선물로 참 좋겠지요

●군산유과 1상자/17,000원

- 생산지: 군산 삼학식품
- 특징: 재래식으로 참밭을 사해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성한과 선물세트)

●한과세트 1호(강정세트)

오동나무상자/51,000원

- 내용물: 흑임자, 참깨, 들깨, 땅콩, 잣, 태극강정 2단
- 상자크기: 28.5×35.5×2.5cm

●한과세트 2호(강정+유과세트) 손잡이상자/31,000원

- 내용물: 참깨유과, 흑임자유과, 들깨유과, 흰유과, 산자, 들깨강정, 참깨강정
- 상자크기: 36.5×16×14cm

●한과세트 3호(산자+유과세트)

1상자/25,000원

- 내용물: 흰유과, 참깨유과, 흑임자유과, 들깨유과, 산자3단
- 상자크기: 36×24×4cm

●약과선물꾸러미(6가지 모양의 약과) 1상자/32,000원

- 상자크기: 18×25×4cm

(보은농민회 기름세트)

●기름세트

- 참기름, 들기름, 고추씨기름 중 자유롭게 선택
- 2병들이 또는 4병들이 손잡이 상자를 구입, 이용하세요.

겨울에 즐기는 신선한 딸기와 방울토마토

●고령딸기 1.2kg 1상자/9,500원

- 생산지: 경북고령 광해석
- 특징: 벌을 매개로 수정하기 때문에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톱밥, 깻묵, 골분, 이분, 쌀겨를 섞어 인산발효퇴비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청정수로 재배합니다.
- 공급시기: 1월 중순

●방울토마토 800g/6,000원

- 생산지: 풀무생협 박종권
- 품종: 베베
- 특징: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분, 톱밥, 쌀겨 등의 발효퇴비로 재배합니다. 벌을 매개로 수정하고, 가끔 생기는 진딧물은 하모니(유기농협회에서 공급하는 천연약제)를 이용합니다.
- 공급시기: 1월 중순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든 메주를 공급합니다.

●메주 4장(소두반말)/가격미정

- 생산지: 무안신협
- 특징: 무안신협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당해년도의 콩을 원료로 사용하여 전통 재래식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 민우회생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581-1675

11월 30일 현재 회원수, 매출액, 출자금 현황



회원수

2,639명



매출액

108,388,424원



출자금

85,415,402원

11월 공동체별 매출순위입니다

순위	공동체 (봉사자)	매출금액
1	노원구 상계동 주공A 6단지 (김희영)	1,145,000
2	관악구 봉천7동 교수A 가동 (김현숙)	1,105,000
3	고양시 주엽동 강선마을 보성A (김인숙)	910,800
4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2 (김미정)	872,640
5	강북구 수유2동 527 (김성애)	768,900
6	녹번동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서정희)	693,200
7	고양시 주엽1 강선마을 롯데A (김연희)	679,200
8	은평구 구산동 구산중학교 (김미교)	634,800
9	노원구 하계동 전영A (김효순)	622,950
10	관악구 봉천6동 장미원A (임상희)	601,700

한국여성민우회 제10차 정기총회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의 아쉬움을 접고 새로운 계획과 기대를 품어 봅니다. 올해는 민우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민우회 정회원 및 대의원 여러분의 애정과 지혜를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때: 1997년 1월 25일(토) 오후 2시 30분
- 곳: 종로성당(지하철 1·3·5호선 종로3가역, 종묘주차장 옆)
- 총회 주요 내용: 개회선언
우리 민우회원은
격려사
성원보고
의순채택
의안심의 - 96년 사업보고 승인
- 96년 결산안 승인
- 96년 감사보고 승인
- 97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회원상견례
회원수상
평생회원 감사패 증정
다함께 다과회

'97 성폭력 상담원 교육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이수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때: 1997년 2월 10일~2월 21일 (2주간)
- 곳: 〈가족과 성 상담소〉 교육장
- 교육비: 10만원(교재비 포함)
- 문의: ☎ 646-8858~9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두 강의로 구성된 이번 강좌의 첫강의는 학생들의 객관적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두번째 강의는 그들의 직접적인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기쁜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 때: 1997년 1월 20일~1월 30일
- 곳: 한국여성민우회 동북지회 사무실
- 교육비: 1만원
- 문의: ☎ 991-3657

어린이들에게 마음놓고 권하는 읽을거리

초등학생을 위한 「창작동화 베스트 108편」을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펴냈습니다. 사회와 역사, 평화, 통일, 환경, 가족에

등을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 확인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독서수첩도 드립니다.

- 값: 1질(10권)/4만원
☞ 권장소비자가격에서 20% 할인한 가격
- 문의: 민우회 생협 ☎ 581-1675

훈훈한 '정나눔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생산지에서 물량이 넘칠 때, 특히 채소 과일류는 생협 주문량 외에는 그대로 버려지기 일쑤여서 어렵게 생산한 사정을 아는 생협 관계자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정을 접한 생협위원회에서는 지회에서 선정해 주신 모범공동체에 '정나눔공동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나눔공동체'는 생산지에 물량이 넘칠 경우 우선적으로 소비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끈끈한 정을 나누는 '정나눔공동체'가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하고 싶은 회원이나 공동체는 생협으로 연락해 주세요. '정나눔공동체'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 남서지회: 목동A.12단지 이성미외 2명, 목동A.1103동 윤지영, 목동A.9단지 김소영외 2명, 목동A.921동 이은주, 목동A.12단지 채영남외 1명, 목동A.1425동 서은숙, 목동 한신A.114동 병숙희외 1명, 신정3동 김정자, 목2동 김인경, 등촌동 미주A. 문희경, 목동 한신A.105동 최윤선, 목동 신시가지A. 여영순, 목동A.1022동 조성화, 목동A.305동 김정린
- 동북지회: 상계5동 벽산A.박성숙, 방학3동 벽산A.윤경엽, 공릉동 우성A.마은주의 3명, 공릉동 우성A.류옥금, 하계동 건영A.김효순, 미아2동 햇살놀이방 오은조, 신내동 정원A.이정애외 1명, 월계3동 시영삼호A.김종현외 3명, 상계 주공A.122동 권석경, 중계본동 현대A.변혜원, 방학4동 전현숙, 중계2동 경남A.신경혜, 방학3동 벽산A.김연순, 중계2동 시영A.김동엽, 상계 주공A.914동 정경림, 상계 주공A.617동 박범이
- 분당지회: 상록마을 라이프A.이길량외, 까치마을 선경A.이순동외
- 일산지역모임: 강선마을 보성A.김인숙외, 성서마을 풍림A.임재련외, 호수마을 유원A.임해선외, 후곡마을 태영A.정정희외, 강선마을 두산A.이희란외, 탄현마을 동성A.김소영외

남서지회가 새로운 수익사업을 시작합니다

남서지회 김혜경 회원이 '남성용 두루마기'를 만드는 〈한수기업〉을 열어 남서지회가 수익사업으로 을 합쳤습니다.

5가지 색상과 8종류의 크기를 갖추고 있고 겉·안감이 모두 본건이라 가볍고 따뜻합니다. 민우회원에게는 20% 할인혜택이 있고 할부도 가능하답니다.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남서지회 ☎ 643-1253
한수기업 ☎ 646-8954(목동이대병원 건너편)